미국·프랑스·캐나다 명상수련 바람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계 사찰 선산승원에서 참선을 수행을 하는 미국인 불자들. 요즘 구미에선 가족단위로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려는 불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로 다른 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서양에서도 산사(山寺) 수련회가 여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서양의 산사 수련회 역시 도심을 떠나 나를 찾겠다는 불자들의 바람이 있지만, 그 방식이 수행자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우리의 수련회와는 달리, 걷기나 글쓰기 또는 골프와 같이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수련회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

프럼 빌리지 가족단위 유럽불자 즐겨찾아

선산승원 글쓰기 · 그림 · 꽃꽂이와 명상접목

농원선원 몸소 농사지으며 무소유 배워

틱낙한 스님의 주석처로 유명한 남프랑스 '프럼 빌리지'는 유럽 불자들이 가족 단위 수행처로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이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7월경 20일간 진행되는 '평화를 위한 걷기'. 타포반 명상센터에서 프럼빌리지까지 걷기만 하면 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걸음과 숨의 횟수를 세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는 틱낙한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정념'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계 사찰인 선산승원은 미국 불자들 사이에서 명상과 문화를 접목한 산사체험으로 유명하다. 작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작가를 위한 사성제'의 경우, 2박3일간 책상을 떠나지 않은 채 글을 쓰는 게 프로그램 내용의 전부다. 그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 자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명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형상을 실크 캔버스에 옮기고, 그것을 비단실로 한 땀씩 수놓는 '그림과 자수를 함께'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의 그린 걸치 농원선원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혜택과 그것을 주변에 회향하는 법을 배우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들이 직접 수확한 채소를 인근 자선식당에 7 증하는 행사.

이외에도 캐나다 청년불자들이 단기 출가지로 선택하는 감포승원이나 티베트불교 전통을 따르는 미국의 샴발라 센터도 독특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기다. 특히 샴발라 센터의 '골프와 마음', '한여름날의 축제'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의 명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골프를 치면서 혹은 바베큐를 구우면서 자신을 관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7, 8월 두달간 미주,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이들 수련회가 단기 출가 형식이 아닌 일상 속에서 불법을 찾는 것에 집중된 것은, "서양불교는 개인 차원이 아닌 가족 차원의 수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태아영가 극락 왕생발원 10년째

포천 구담사…49일 천도재 입재

하루 6,000명, 연간 200만명의 태아가 낙태수술로 생명을 잃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찰이 태아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꾸준히 지내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의 태아영가 천도도량으로 문을 연 포천 구담사(주지 지율)는 7일 개설 10주년을 맞아 49일간의 태아영가 천도재 입재에 들어갔다.

이날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을 모시고 입재식을 가진 구담사는 태아영가 위패와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영가옷 등을 갖춘 태아영가단을 마련하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구담사에서 태아영가 천도재를 봉행한 신도는 10년동안 모두 1,000여명에 달한다. (031)533-2855 김재경 기자

법주사 대웅전 보수

기둥 부식…봉정사 극락전 · 송광사 대웅전도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창건돼 국내 3대 불전 중 하나인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제915호)이 완전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한국재난연구원에 의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이 심하게 썩고 기우는 등 완전 해체 보수 ·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기둥이 썩는 것은 물론 일부 목재의 연결 부위들이 탈락 현상을 보이는 등 건물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의 밑부분은 심하게 썩어 구게를 견디는 힘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기울기 현상마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완전 해체 · 복원공사를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물의 규모가 커 2년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해체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주요 부재는 그대로 살려 원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법주사 대웅보전 외에도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보물 제1243호)도 이 달 중 완전 해체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양산 이웃돕기 음악회

경남 양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봉 · 천불사회주)는 7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독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제1회 양산시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음악회는 스님 40여명과 나오연 국회의원, 안종길 양산시장, 정세영 양산시의회 의장 등 3,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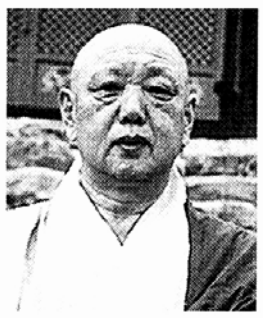
박순렬 울산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불교 문화재 보존 앞장

안동 사암련 일우스님



"경북 안동의 국보 · 보물급 탑 등 안동시내 성보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시당국은 관리 · 보수에 뒷짐만 지고 있어 불교계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 및 대웅전(보물 55호), 안동 신세동 7층석탑(국보 16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등 총 359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안동시 불교사암연합회의 회장인 일우스님(용담사 주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안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성보문화재 보호 및 보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일우스님에 따르면 신세동 7층전탑은 중앙선 철로변에 위치해 열차의 진동 등으로 동북방향인 철로변 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이며, 조탑동 5층전탑(보물 57호)은 개인 소유의 과수원내에 위치해 주변이 온갖 쓰레기 더미와 잡초에 뒤덮여 있는 등 탑 20여 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지역의 문화재 관리가 그동안 소홀이 관리되어 온 것은 '유교문화권 개발'이란 지자체의 명분과 유교 가톨릭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1972년 출범한 사암연합회가 30여 회원사찰을 갖고 활동을 펼쳐 왔지만 유교의 본향인 지역정서상 포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초 일우스님이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봉축행사는 물론 사회참여와 문화재 보존 활동을 위주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 제정 반대

군법당 · 안교도소 포교 강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6개 지역 시민 · 환경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낙동강 특별법 제정반대운동. 지난 2일 안동역 광장에서 주민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동강특별법 제정 반대 경북도민 대회에서는 사암연합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관한 '경북지역 생존권확보 대책위' 상임대표를 전임 회장인 정우스님(대원사 주지)이, 고문을 일우스님이 맡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사찰도 이젠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라는 일우스님은 불교회관 건립, 30사단 군법당 및 안동교도소 법회 강화 등 지역포교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동=김재경 기자

바다와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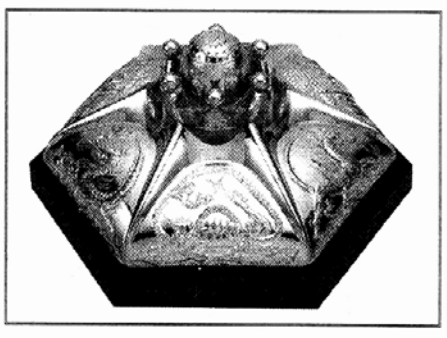
◇일 정 : 2001년 7월30일(월)~8월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1일 오후 5시 조계사 · 봉은사
◇문 의 : 전화 0502-317-2555
02-722-4162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가 격
1호 : 10만원
2호 : 20만원
골드1호 : 30만원
골드2호 : 40만원



육기방이 확 달라졌습니다

명당 육기(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氣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다하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불행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마루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아버지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다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가정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벌집의 힘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벌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정에 꼭두십시오
항상가정에 천기와 지기 그리고 좋은 육기의 정기가 뭉치는 기운을 발게 해줍니다. 항상 근심걱정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 입니다.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불행과 액운을 막아주고 항상 가정을 수호해주는 방패로서 사용하십시오. 항상 가정에 좋은 정기가 모이고 뭉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불자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 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